

# 장수군, 팔공산 일대 절터 8곳 확인

불교유적 학술조사 결과... 지역학 기반 '장수학' 구축 위한 조사 성과

장수군은 가야문화연대(대표 이춘구)가 전북 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도민 지역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팔공산 일대 불교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점사(雲岾寺) 터를 포함한 총 8개소의 절터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학을 통해 장수 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장수학'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학술조사 과정에 장수군인이 직접 참여해 조사 성과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연구가 결합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 대상지는 팔공산 동쪽 서상골 일대로 현장 조사 결과, 운점사 터와 7개 암자 터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운점사지는 팔공산 동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익산 미륵사지 사자암과 유사한 입지와 경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다수 확인돼 해당 지역이 오랜 기간 불교문화와 연관돼 있었음이 보여졌으며, 일부



장수군은 가야문화연대가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의 '도민 지역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팔공산 일대 불교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점사(雲岾寺) 터를 포함한 총 8개소의 절터를 확인했다.

암자 터는 전반적인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야문화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수군 내 불교유적 전반에 대한 추가 지표조사와 학술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성과는 향후 장수지역 역사·문화 연구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학술조사는 군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장수군은 앞으로도 지역학 기반의 학술조사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리와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북 민속음악 음악사적 의미·가치 조명

국립민속국악원, '전북의 풍류' 발간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석암 정경태 명인의 국악보(1956)를 중심으로, 전북 풍류 음악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자료집 '전북 민속음악학술자료집 제6집: 전북의 풍류 - 정경태 국악보와 전북 민속음악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전북 지역 풍류 문화의 형성과 전승 양상을 조망하고, 석암 정경태(1917~2003)가 전주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재직하던 1955년에 간행한 '국악보'를 중심으로 전북 민속음악의 음악사적 의미와 자료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학술서다.

국악보는 1950년대 전북과 호남 일대에서 연행되던 풍류 음악의 실제 모습을 담아낸 중요한 기록으로, 지역 음악 문화 연구의 핵심 자료로 평가받아 왔으며, 전북 지역 풍류 문화의 사회·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국악보'에 수록된 기악·성악·법패·무용 관련 악보와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 글이 수록됐다.

또한 당시의 기보 체계와 음악 인식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전북 민속음악이 지닌 지역적 특성과 예술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에는 '국악보'에 수록된 주요 악보와 기록을 바탕으로, 현대 연구·교육·연주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오선악보로 역보(譯譜)하여 수록했다. 이는



전통 기보법의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연구·교육·연주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전북 풍류 음악의 전승과 확산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의 풍류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 최북미술관 신진작가발굴 기획전

3명 작가 38점 작품 전시

'2025년 최북미술관 신진작가발굴 기획전 Young Artist III'가 오는 2026년 1월 25일까지 무주군 무주읍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유망한 신진작가들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공립 미술관으로서 지역과 동시대 미술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강효정, 구미송, 김한비 세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38점의 평면 회화 및 조소 작품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 사물을 바라보는 감각적인 해석으로 자신만의 결을 담아낸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뿌리' 등의 작품을 내놓은 강효정 작가는

예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구조를 재조명하면서 이를 '뿌리'라는 생물학적, 식물학적으로 사고하며 형상화해 눈길을 끈다.

또한 구미송 작가는 인공물을 통해 도시 속 자연의 이미지를 재구성한 '자연과 사이'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와 자연의 조화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여운을 선사한다.

"외로운 나그네의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주인공의 모험을 따라가는 김한비 작가의 시선은 '관계' 속에서 찾아 가는 '독립'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양정은 최북미술관 학예사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 세 번째 기획된 것으로, 각기 다른 경험과 시선을 지닌 신진작가들이 표현한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이번 전시회가 작가들 창작 활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예술



가들과 동시대 미술의 확장과 발전을 이어가는 최북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임실 예술인의 밤' 행사 성황리 개최

공로패 수여·축하 공연 등 펼쳐

임실군이 지난 19일 임실 문예당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2025 임실 예술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임실지회(지회장 이병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임실군의회 의원, 지역 예술인,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펼쳐진 임실 문화예술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창작 활동에 매진해 온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임실군수 공로상에는 왕혜경, 한국예총 공로상 유정금, 전북예총 공로상 장창호, 임실예총 공로상 김영숙, 임실예술인상 오해연 5명이 수상했으며, 특별공로패는 서예가 산민 이용, 취석 송하진, 효봉 여태명 3인의 명인에게 주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임실 예술인들이 직접 준비한 국악, 성악, 악기 연주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장르를 넘나드는 수준 높은 공연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예술인들 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심 민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 활동에 매진하며 군민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준 예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예술과 문화가 군민의 일상속에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시 참여 작가·단체 공개 모집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시민 열린갤러리와 2층 장미갤러리 전시에 참여할 시민 작가나 문화예술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전시 관람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미갤러리 6팀, 시민열린갤러리 6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 시민 작가 또는 군산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 박물관 1층 사무실 방문 또는 전자우편(wldt0212@korea.kr)으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1월 중 누리집 공고 및 선정자 개별 통보로 안내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최대 60일 동안 박물관 전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